

## PEOPLE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 광주은행

##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페인은 광주은행 본점 앞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광주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본점에 입주한 협력사 직원들도 동참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또 기념품을 대신해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헌혈 기부권’과 헌혈증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참여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2018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이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실천이다”며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내달 ‘광산, 서원 아카데미’ 개최

## 강연·강학회·음악회 프로그램

광주 광산구가 5월부터 호남유학 인문 프로그램 ‘광산, 서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산, 서원 아카데미’는 광산구가 주최하고 전남도 호남학당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생활 속 지역 인문학을 보급하고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유교 인문학을 토대로 한 강연과 강학회로 일상의 깊이를 더하고, 고봉 기대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답사 프로그램과 빙월당 음악회로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서원 아카데미, 서원 강학회, 빙월당 음악회를 진행한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농협 장흥군지부

## 영농지원 발대·일손돕기 행사

농협 장흥군지부는 최근 용두농협에서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고흥군지부, 보성군지부, 강진군지부, 용두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장동면 옥포정 모판정리 및 종자 망 작업 등을 진행하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농협중앙회 4개군(고흥·보성·장흥·강진) 일손돕기 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농철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김해중 농협 장흥군지부장은 “이번 영농지원 발대식과 농협 4개군 연합 농촌 일손돕기 행사가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호남지역 성인교육의 새로운 장 열다

한국종합예술교육원-국제사이버대학교 협약

호남학습관 공식 출범...실용성·전문성 겸비

한국종합예술교육원(학장 김영미)은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홍승정)와 손잡고, 호남지역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국제사이버대학교 호남학습관’을 최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인프라 확장과 함께,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기관은 최근 협약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호남권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입시를 준비하는 지역 학습자들에게도 커다란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승정 총장은 “국제사이버대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

나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호남학습관 개설은 지역과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혁신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식물치유클리닉학과, K-뷰티학과, 시니어모델학과 등 시대가 주목하는 특성과 학과를 통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미 한국종합예술교육원 학장은 “우리는 이제 단순한 예술 교육을 넘어,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생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교와의 협력은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운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물치유클리닉학과는 식물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

며,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치유의 힘’을 과학적·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다.

국제사이버대학교는 현재 총 19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그중 상당수 학과는 국가공인 자격증과 직접 연계돼 있어 실용성과 취업 연계가 뛰어나다.

식물치유를 통한 심리회복과 뷰티산업의 전문화, 중장년층의 새로운 커리어 발굴 등 각 학과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의 공간으로 성장 중이며, 이번 호남지역학습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상담, 국가자격증 연계, 지역 기반 학습 커뮤니티 조성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다경 기자 alsqld194@gwangnam.co.kr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에 나선 이창래 학과장과 김영미 학장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으로 무료로 지원한다.

##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생필품·의약품 지원

## 희망을 나누는사람들·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협력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으로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와 협력해 4월에는 생필품, 8월에는 의약품이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생필품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경진)에서, 의약품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김일환)에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생필품 1100세트(6400만 원 상당), 의약품 500세트(1000만 원 상당)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생필품은 삼푸, 비누, 치약, 칫솔, 세제 등이, 의약품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알러지약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물품 운송과 배분 작업에 동신대학교 학생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한다.

물품 지원은 2025년 전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전남도의사회가 공급하면 시군에서 수령해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과 음식나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3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 사업 입주자와 공사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음식 만들기’와 이웃사랑 반찬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주거생활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세대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5년 4월 현재까지 종합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비주거시설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세대는 330세대에 달한다.

이날 행사는 남도전통음식의 보존 연구자인 고선자 강사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이 전통음식인 궁중잡채를 함께 만들고 소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공



사에서는 미리 준비한 반찬을 전달했다.

김승남 사장은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과 퇴거 위기 등 주거불안을 겪는 가구가 여전히 많다”며 “주거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23일 동구인문학당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열고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인권헌안 업무를 논의했다.

## 한전KPS-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 한국가스기술공사·한전KDN·전북테크노파크 등도 참여

한전KPS는 23일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안산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도시 특화요소에 해당하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협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KPS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후에도 부안군이 본격적인 수소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안산에 이어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수소사업 선점을 통해 미래 사업기회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친환경 수소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부안군을 포함해 12개의 수소도시가 지정돼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북광주농협 구내식당에서 ‘화목한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 농협 광주본부, 북광주농협서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북광주농협 구내식당에서 ‘화목한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활동을 펼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농협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내산 쌀로 만든 간편식 떡국과 쌀국수로 아침밥을 함께하며 쌀 소비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 문홍식 광주검문사국장을 비롯해 북광주농협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밥이 성장하는 청소년기

영양섭취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족들과 아침밥 먹기 생활화에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밥 먹기 생활화는 국산 쌀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이라며 “앞으로 지역민들이 가족과 정이 가득한 화목한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하는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서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안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3일 서구청 들뜰출에서 열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안내 및 알레르기질환 교육’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